2강 중세 건축 발전의 토대

1교시 평면 구조에서의 변화

▲ 중세 건축의 분화 과정

우리가 초기 기독교 때 봤던 라틴 크로스는 꽤 단순한 형태였는데, 이게 [그림 271]이나 [그림 718, 716] 이쪽으로 분화하는 과정은 중세 건축의 중요한 발전 과정의 하나라는 얘기죠. 물론 수직적으로 발전도 있는데, 일단 평면 구성을 봤을 때, 이게 로마네스크[그림 271], 이게 고딕 성당 [그림 716]의 완성된 표준 유형이라고 봤을 때, 과연 이런 단순한 형태에서 어떻게 복잡한 형태로 갔는가.

이 과정에서 당연히 기독교가 분화되고, 그래서 중세 기독교라고 하는, 이 바실리카형 라틴 크로스는 초대 기독교(초대 교회)에서 로마 헬레니즘(Hellenism)권 문명을 바탕으로 한 로마 기독교의 산물이고, 이것은 중세 서북 유럽 기독교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은 이 책에는 없는데, 여러분들 초기 기독교 할 때의 기억을 되살리면 되고, 이것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발전하게 되었는가. 그 설명을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웨스트 워크도 했었고, 이스트 엔드, 지난번에는 웨스트 워크까지 했어요.

이스트 엔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동쪽에 있는 성단소, 서쪽이 커지고 동쪽도 따라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초기기독교까지는 성단소 쪽에 성상안치소, 제단, 앱스(apse) 이 세 가지 정도로 성단소가 이루어졌었는데, 그게 로마네스크로 접어들면서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가 들어가요. 하나는 성가대석(choir)인데, 로마네스크 때 처음 성가가 도입되었다는 얘기를 전 시간에 했어요.

그 전까지는 미사 지낼 때 성가를 안 불렀어요. 그러다가 로마네스크 미사 때 성가가 처음 도입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성가대석(choir)이 중요한 요소로 여기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시 271로 가보면 위에 과자같이 생긴 것, 이게 과자가 아니라 radiating chapel, 이것 하나하나가 똑똑 떼어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반원 하나하나가 채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나 순교자, 12사도 등 봉헌대상 하나하나(성모마리아, 예수그리스도)에게 각각 봉헌된 채플들이에요. 이게 방사형이기 때문에 방사형 채플이라고 불리게 되요.

그리고 이 부분(채플의 아래 부분)이 부분이 성가대석이에요. 성당 보면 성가대들이 여기 양쪽에 앉았다 일어섰다 해요. 성가대석이 여기 위치해요. 이거 두 개가 더 달라붙으면서(채플과 성가대석) 이때는 성상안치소라던가 앱스(apse), 제단 정도였는데, 여기 성가대석이 들어오면서 성상안치소가 옆으로 비껴나거나 채플이 여기까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성상안치소 옆으로 공간이 구획이 되면서, 가운데는 성가대석으로 확보가 되고, 채플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게 복도, 환상형(circular form)이라고 하죠, 환상형 공간이 되면서 저렇게 분화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 워크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이스트 엔드가 커져가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첫 과정은 앱스(apse)가 세 수로 증식하는 게 첫 번째 현상이죠. 88페이지의 [그림 106]을 보면 앱스(apse)가 네이브 쪽 끄트머리에 하나 있고 아일 쪽에 하나씩 있게 되고 그래서 앱스(apse)가 세 수로 되다가 그 다음에 뒤에 96페이지로 넘어가보면, 처음에는 여기까지 확장이 되면서 앱스(apse)가 세 개로 늘어나다가, 성물의 중요성이 굉장히 늘어나는 때에 오게 되면 더 이상 기독교가 탄압대상이 아니라 가장 큰 권력이 되면서 그 이전에 탄압받던 시대의 성물들을 쭉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해요

어느 집이건, 어느 나라건, 잘 살게 되면 자기네 역사를 정리하게 되는데, 기독교 역시 종교 역사이기 때문에 성물들이 중요해졌어요. 이를 발굴 등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늘어나게 되고, 이중 순교자의 시신, 유품들, 여러 가지 성구들, 그 다음에 로마가 안정되면서 로마의 파스칼1세(pascal)를 필두로 초대교회의 대대적인 정리 작업이 있다고 했어요. 이 정리 작업이 교회를 다시 짓는다거나, 망가진 교회를 중, 개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물을 발굴해서 정리하고 하는 작업이 늘어나면서, 이 성물들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게 되요.

이 성물을 보관하는 공간을 총칭해서, confessio라고 불러요. 아테네에서 온 이태리 말인데, 반드시 무덤일 필요는 없었고, 그 이전 초기 기독교 건축 까지는 대체로 이런 성인들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 무덤건물 이였는데(순교자의 시신을 담는), 순교자 기념 성당류의, 여기 더해서 이러한 성물들로 확장이 되면서 confessio라는 별도의 공간으로 크게 확장이 되는 거죠.

97페이지를 보면 confessio는 신도와 방문객을 불러 모으는 중요한 요소였다. 종교기 때문에. 순례여행자를 끌어들이는 순례루트형성에도 영향을 끼쳤다. 순례여행을 나중에 할 텐데 순례여행이 중요해요. 순례여행은 중세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였는데, 지금도 약간 순례여행의 잔재에다가 tourism의 개념이 가미된 성지순례를 해요. 교회나 성당에서 돈 모아서.

옛날에는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고, 상당히 중요한 종교 행위였는데, 순례 루트를 정해야 할 것 아네요. 이 순례루트의 중요한 거점지들로 어느 도시들이 선정이 되냐 하면, 유물을 많이 갖고 있는 도시들이 선정이 되요. 수백 개의 도시 중에 선정을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종교심이 배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성물이 많으면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등의 식이에요. 그래서 순례 루트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의 기독교적 권력 요소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중세 때 번성한 도시들 중에 순례 루트에 있는 거점도시들은 방문객들을 상대로 한 숙박업으로 돈을 벌어서 큰 도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유물은 종교적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각 왕조, 지역 군주, 지역 기독교와 연합해서 경쟁적으로 성물을 발굴을 하고, 다른 성물을 돈 주고 사오고, 이런 식이 되면서 성물을 담는 공간이 중요해져요.

이 confessio가 더해진 곳이 이스트 엔드가 되면서 성상안치소가 결국 초대 기독교, 초대교회에서의 성상안치소가 이 confessio로 발전하게 되요. 공간이 확장되고 분화되면서. 성가대에서 양 옆의 공간들이 커지면서.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지하 납골당 시설

그 다음에 무덤을 중시 할 경우에는, 무덤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지하 납골당을 별도로 갖게 되는데, 이게 한 명이나 두 명일 때에는 바닥 밑에 무덤을 둬요. 초대 기독교 때에는. 그런데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서 지하에다가 별도의 납골당 시설을 갖추게 되요. 지하의 납골당 시설이 이런 radiating chapel형태로, 방사선형태로 지하납골당이 많이 지어지게 되요. 대표적인 예들이 [그림 122~126]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숫자 확보에 유리하고, 동선을 이렇게 짜 놓으면 순례 교회 1층에 들어와서 구경하고, 지하에 내려와서 한 바퀴 쭉 돌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수의 무덤을 차례대로 볼 수 있는 시퀀스 구성이 되기 때문에 동선 처리에서 유리하게 되요. 지하 납골당이라는 방사선 구성이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radiating chapel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무덤이나 유물공간은, 기독교 중에 주로 가슴, 감성으로 호소하는 공간이에요. 감성으로 호소하는 공간이고, 의식이나 제식, 미사 드리고 하는(이때에는 개신교는 없었으니 예배라는 개념은 없었고)공간은 머리에 해당하는 공간. 그래서 뜨거운 종교적 열정과 그것을 성경의 교리로 잘 풀어서 설명해주는 제식,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서 성당이 발전하게 되요.

다시 이스트 엔드로 오면, 지하에 있던 납골당의 기본골격인 방사선형 공간이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채플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납골당이 그대로 채플로 따라 올라오기도 하고, 채플들이 무덤 기능을 겸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무덤은 그대로 지하 납골당으로 놔두고, crypt라고 하는데, cappella을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기도소에 가깝죠. 무덤 기능 없이 순수한 봉헌공간으로써 기도만 드리게 하는. 그래서 이스트 엔드가 발전하게 되요.

▲ 더블 엔더

더블 엔더라는 것은 이스트 엔드와 웨스트 워크가 교회 양쪽 끄트머리에 증가가 되면서 균형을 이루었는데, 웨스트 워크는 俗(속)의공간이고, 이스트 엔드는 聖(성)의 공간이에요. 이스트 엔드와 웨스트 워크, 여기서는 성과 속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쌍 개념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성과 속의 쌍 개념에 대한 설명은 52페이지부터 쭉 되어있어요. 불교 같은 게 현실세계에서 한 발짝 도피해서 개인 수도 중심으로(물론 불교도 현실세계에 많이 관여를 했지만 - 구국의 난) 진행된 종교인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현실 세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현실적 전략(정치적, 생존적, 투쟁)의 측면에서 쓰인 부분이 성경에 많아요.

성경으로 쓰이기는 했지만 결국 성경을 쓴 것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추측컨대, 성경을 쓰는 과정에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지향점 중 하나인 현실세계의 참여가 성경에 많이 반영이 되어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서 현실적으로 잘 승리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이 많이 강조가 되요.

그 다음에 로마 기독교가 자리 잡는 과정을 보더라도, 기독교는 현실세계부터 쭉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서양 기독교 문명에는 순전히 베푸는 성적인 문명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끊임없이 성과 속의 쌍개념이 작동하게 되고, 그게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문명 방식이 달라져요.

이러한 성과 속의 개념이 잘 드러난 건축 개념 중 하나가 이스트 엔드와 웨스트 워크의 균형개념인데, 이 웨스트 워크 대신에 이스트 엔드가 하나 더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것을 더블 엔더라고 불러요. 더블 엔더는 주로 독일에서 많이 쓰였고, 목적은 봉헌한 표제성인이 두 명 일 경우에, 그리고 두 명의 중요성이 비슷할 때, 한쪽 편만 들어주면 섭섭해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양쪽에 똑같이 한 명씩 두게 되요.

이 더블 엔더는 선형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개념이 굉장히 틀려요. 보통 표준적인 라틴 크로스는 서쪽 출입구를 지나서 쭉 선형공간이에요. 결국. 더블 엔더는 출입을 중간에서 하게 되요. 라틴 크로스는 한번 들어오게 되면 한 번도 안 꺾이고 종착점까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더블 엔더는 한번 들어오면 꺾어야 해요. 그리고 유턴해야 해요. 선형공간은 선형공간인데, 시퀀스 처리 방식(동선 처리)이 표준형 방식하고는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이것은 독일 지역이 좀 남아있어요. 그 예는 [그림 111~113]이에요. 그 다음에 이상이 수직구성이었고, 수평방향에서의 확장. 지금 설명을 듣고 나면 다시 일로 들어가 보면 왜 저렇게 로마네스크 성당과 고딕 성당이 복잡한 형태가 되었나에 대한 설명이 잘 되었어요.

▲ 수직 구조에서의 발전

수직적으로 보면 네이브 월(Nave Wall)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있으면 네이브 아일을 가로지르는 벽을 네이브 월이라고 불러요. 중세 성당의 완성점은 3단구성이 완성점이에요. 1층은 아케이드(arcade), 2층은 갤러리(Triforium), 3층은 천측창(clerestory), 이렇게 3단구성이 표준 구성이에요.

초기 기독교 바실리카에서는 2단구성이였어요. 갤러리가 없었어요. 아케이드 위에 바로 창이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네이브와 아일이 높이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천측창인데, 창이라서 빛이 들어오는 채광공간이고, 이 부분이 아케이드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게 중세로 오게 되면서, 높이가 높아지면서 아케이드 하나로는 높이를 다 못 받치게 되요.

이것은 천측창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창의 면적이 늘어나야 해요. 코딱지만 한 창 하나 뚫어놓는 것은 뚫으나 마나에요. 그러다 보니 아케이드 한 층으로는 부족해지고, 높이가 높아지면서 두 개의 층으로 나뉘게 되는 거에요. 1층은 아케이드로 남고, 2층을 트리포리엄이나 갤러리라고 부르게 되요.

Triforium과 갤러리의 차이는, Triforium은 천장이 목구조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천장이 구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조기능을 갖지 못해요. 이것은 층만 나눈 거지 도움이 안 돼요. 둘로 나눈 궁극적 목적은 지붕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잘 받기 위해 둘로 나눈 것인데, 목구조이기 때문에 자기 자중만 담당을 하지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받지 못해요. 갤러리는 석조 볼트 구조, 특히 그로인 볼트에요. 이렇게 되면 천장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상당히 잘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완성점이에요.

갤러리가 되면서 가능한 한 이 높이도 함께 높아지면 수직성이 유리하겠죠. 발전과정을 보면 먼저 트리포리엄이 먼저 쓰여요. 그러다가 이것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천장 구조를 석구조로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갤러리가 등장하고 발전이 있게 되요. 수평 확장과 더불어서 이게 수직 확장 내용이에요.

이것을 다이어그램 식으로 잘 설명을 해 놓은 게 [그림 96]이에요. 천장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아일 쪽이 2층이 되면서 천장이 볼트가 되면서, 볼트 곡면을 따라서 하중이 외벽으로 transfer 되는 거예요. 외벽 자체가 두꺼우면 받아낼 수 있고, 불안전하면 거기에 버트레스를 덧붙여서 보강을 해서 옆에서 추가로 받아주는 거예요. 간단한 하중흐름이에요.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이번은 대부분 건축과 학생이라 다행인데, 건축과 아닌 타과생은 공포에 질려서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천장 무게를 이 상태에서 잘 받칠 수 있는, 그 흐름을 물처럼 매끄럽게 흘러내려오게 하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는 초창기 상태라 천측창이 거의 없는데, 이 구조적 가능성을 충분히 살려서 건물이 높아지면서, 천측창 면적이 넓어지면서 밝은 빛이 들어오게 되요. 이게 수직 방향으로의 확장. 그러면서 중세 건축으로의 발전 토대가 닦이게 되었다는 얘기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2강 중세 건축 발전의 토대

2교시 초기 로마네스크의 발전 과정

▲ 남부 로마네스크와 북부 로마네스크

초기 로마네스크는 크게 남부 로마네스크와 북부 로마네스크로 나뉘어요. 남부 로마네스크는 프랑스의 부르고뉴 지방, 그리고 당시 여기에 종속되어 있던 (프랑스에 인접한)스페인의 일부 지역이 중심지입니다. 부르고뉴는 영어로는 버건디라고 하는 지역이고, 북부 로마네스크는 독일의 중북부 이상 지역이 중심이 됩니다. 노르망디(프랑스 북서부 지역)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별도로 보기도 하는데, 포함시키면 초기 로마네스크는 둘이 되고, 별도로 보면 셋이 되는 거죠.

노르망디 지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프랑스와 영국이 교대로 지배했던 지역입니다. 나중에 가면 프랑스로 귀착이 되는데, 프랑스와 영국이 마주 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보면 대마도나 부산 정도 되는 지역이죠.
차이가 북부 지방의 초기의 로마네스크 건축은, 아직 목구조가 쓰여요. 그 대신 공간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부르고뉴 지방과 노르망디 지역은 둘 다 천장이 석구조인데 규모는 작아요. 이 완성점은 석구조가 되면서 공간이 수직적으로 높아지고 커지는 것을 완성점이라고 봐야 해요. 그러니까, 이 완성점에 대한 두 가지 기준을 서로 한 가지씩밖에 못 가진 거죠. 그래서 초기 로마네스크인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 성기 로마네스크일 거라는 것은 추측이 가능하죠.

여기(북부)에서는 목구조를 써서 공간 자체는 커졌지만, 목구조니까 한계가 있죠. 이 당시로써는 목구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초기 로마네스크 건물들이 프랑스나 노르망디의 초기 로마네스크 건물들보다 컸음에도, 나중에의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는,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는, 목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큰 규모의 맥시멈을 채운 거예요. 반면에 이 건물들(남부)은 당시에 규모는 작았지만, 일찍부터 석구조를 썼기 때문에, 나중에 수직적으로, 고딕 건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컸다는 거죠, 지금은 미약하나.

실제로 나중에 고딕 건축의 엄청난 높이를 완성시킨 구조적 발전은 전부 프랑스에서 있게 돼요. 독일과 영국은 나중에 이것을 수입을 해요. 50년~100년 늦게. 이 당시에는 이쪽(독일쪽) 건물이 훨씬 컸지만, 발전 가능성을 생각하면 뒤집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동시대에 큰 공간의 스케일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제시한 점에서는 독일 초기 로마네스크도 일정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이것이 초기 로마네스크의 큰 개요예요.

이처럼 초기 로마네스크는 어느 양식이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게 되는데, 이것이 단순한 차이는 아니예요. 초기 로마네스크는 남부와 북부가 (유럽 전체로 봤을 때) 너무 달라요. 서로 거의 절반씩 (특성을) 나눠가진 형국이에요. 이것을 합쳐야 로마네스크의 완성점에 이르게 되는데, 완성점에 이르는 두 가지 핵심적 내용을 거의 반분한 형태이기 때문에, 초기 로마네스크라는 말 대신에 불완전하다는 의미의 '제1'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학자에 따라서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제1남부 로마네스크, 제1북부 로마네스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제1 로마네스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느 양식 사조 이름이 있고, 그 앞에 접두사가 붙죠. 예를 들어 Early, High, Late(Early 르네상스, Early 고딕, Early 로마네스크, Early 모던 이런 식으로) 혹은 초기, 성기, 후기는 대표적인 거고, 이 외에도 다양한 것이 많이 붙어요. Pre, Pro, Proto, Post, Ultra… 이러한 접두사가 많이 붙는데, '제1'이라는 것은 로마네스크에만 붙는 상당히 특이한 접두어예요.

이 말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지금 얘기한 이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석구조. 결국 석구조를 어떻게 도입을 해서 목구조와 잘 합쳐서 목구조의 장점을 석구조의 장점과 합쳐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수직선을 얻어내느냐… 이것이 완성점의 기준이자 관건인데, 당시 서북 유럽의 전통적인 건축 방식은 목구조였고, 아헨 성당-샤를마뉴가 석구조를 가지고 처음으로 서북 유럽에 건물을 지어보였어요. 그 이전에 있던 석구조 건물들은 로마시대 때 지어진 로마의 유산이고, 중세 건물만의 독립적인 석조 건축 축조는 아헨 성당이 거의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축조술이 비잔틴 건축이 아니라 (로마시대의) 콜로세움 구조를 모델로 받아들인 것이었어요.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당시로써는 상당히 후진적인 구조공법이고, 당시에 가장 발달한 공법은 비잔틴에서 쓰던 기술들인데, 이것(콜로세움)은 왜 후진이냐면, 너무 둔탁하고 두꺼워요. 구조 효율성으로 봤을 때, 높이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죠. 이 콜로세움이나 로마시대 때 쓰이던 방식은, 양쪽에 쌓고 가운데 필링(인필링)을 집어넣는 방식인데, 비잔틴에서는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단겹 구조로 만드는 식의 발달한 공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나온 것이 성소피아와 산비탈레예요.

▲ 비잔틴 시대 축조술 반영

그러니까, 아헨 성당의 석구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탈리아 반도나 비잔틴 제국에서 쓰이던 비잔틴 시대 때 발달한 석구조를 서북 유럽으로 가지고 와서 접목시키는 것이 관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롬바르디아 지방-여기는 밀라노를 중심으로 한, 독일의 북중부 지역-을 지도에서 보면, 109페이지의 지도 135에, Kindom of lombardia가 있어요. 그 밑에 라벤나 비잔틴령이 있어요. 그곳이 당시에는 비잔틴의 영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벤나의 비잔틴령을 통해서 비잔틴 시대 때 발달했던 축조술을 받아들여서 롬바르디 지방에 8~9세기까지 비잔틴 시대 때 발전했던 축조술이 많이 쓰였단 이야기예요. 롬바르디아 지방은 민족 구성으로 봤을 때, 게르만족이 내려와서 세운 왕국이기 때문에, 서북 유럽의 프랑크 왕국하고 굉장히 정서, 문화, 언어적으로 잘 통했어요. 그래서 서북 유럽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이질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롬바르디 지방에 있던 석구조(석조 볼트 천장) 그다음에 롬바르디아 밴드라고 부르는 [그림 134] 같이 벽돌이나 석재 조적을 가지고 문양을 내는 기법이 있어요.

중간쯤 보면 아치가 있고, 아치 위에 보면 상어 이빨처럼 (쉽게 말해서) 벽돌을 45도 돌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서 쌓는 거죠. 그렇게 조적(벽돌) 쌓기를 통해서 문양을 만들어내는 기법을 롬바르디아 밴드라고 불러요. 대부분 이것이 수평 띠 장식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밴드라는 말을 붙입니다. 석조 볼트 천장과 롬바르디아 밴드를 대표적 두 가지 특징으로 갖는 롬바르디아 석조 건축이, 로마가 망하는 격변의 와중에도 롬바르디아 지역에서는 계속 쓰이면서 기술력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기 기독교, 초기 로마네스크가 받아들여요, 이 두 지방에서. 특히 롬바르디아에서 알프스만 넘으면 부르고뉴 지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문화, 역사적으로 가까워서 부르고뉴 지방에서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롬바르디아 지방의 석조술은, 그 이전에 쓰이던 비잔틴의 전통적인 석조술을 새로운 문명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항시적 현상으로써 계속 쓰여 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롬바르디아 지방의 석조술은 제대로 된 양식적인 인식 위에 로마네스크라는 새로운 양식을 지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의미로써 제1이라는 말을 붙여요. 또한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한 가지 항목만을 시작했을 뿐, 완성점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제1이라는 말을 붙여요.

▲ 롬바르디아 순회 석공단

이 롬바르디아 지방에 석조술을 전파한 장인 집단이 있었으니, 이를 가리켜 롬바르디아 순회 석공단이라 불렀다. 111페이지에 나오죠. 이들의 활동 범위는 유럽 전역이었어요. 용병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유럽 문화를 이해하려면 나라별로는 저렇지만, 유럽 문화의 뿌리는 도시국가예요. 국가별 구별 이외에 도시 단위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한 나라 내에서도, 예를 들면 독일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하는데, 독일에 있는 한 공국이 오히려 프랑스와 손을 잡는 일도 다반사였어요. 그리고 기사(knight)들(용병이란 말이 여기에서 오는 건데)은 돈 받고 다른 성주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이런 전통이 있는 거죠.

기사들은 국적에 상관 없이 돈만 많이 주면 어디든지 가서 다른 군주, 성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용병 개념이죠. 요즘에는 스포츠까지 그 개념이 많이 확산이 됐어요. 어쨌든, 이 롬바르디아 순회 석공단도 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롬바르디아 지방의 전통 조적술로 무장한 석공 집단이었다. 당시에는 가장 발달한 건축술이었고, 대형 교회와 수도원 등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장인 집단이었다. 이들을 필요로 하던 고객은 왕실, 상단, 교황청 등 다양했다.”

당시의 권력을 쥐고 있던 그런 계층에서 이들을 돈을 주고 부르면, 어디든지 갔단 얘기죠. 이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지방이 부르고뉴 지방이었고, 이들을 통해서 부르고뉴 지방이 당시에 가장 발달한 기술이었던 비잔틴의 단겹 구조, 단겹벽채 기술을 받아들여서 초기 로마네스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당히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 현상인데, 여기-프랑스의 남부 부르고뉴 지방-이 롬바르디아 석공 순회단을 받아들여요. 롬바르디아 석공 순회단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건축을 기초로 비잔틴 건축술로 무장한 집단이야. 이들은 뭐를 대표하느냐면, 결국 로마, 초기기독교, 비잔틴까지의 지중해 기독교, 고대 기독교, 초대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을 대표하는 집단이에요. 교황청.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그다음 독일의 목구조는 지역 전통을 대표합니다. 나중에 중세로 가게 되면, 프랑스는 계속 로마 교황청의 영향을 받아요. 반면에 독일은 신성 로마제국이 되면서 지역 주교를 임명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프랑스는 로마 교황청을 따라 주교를 임명하는데, 독일은 자기네들이 주교를 임명하게 돼요. 그래서 신성 로마제국과 로마 교황청이 무지하게 싸우게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중세 역사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과 속의 쌍개념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북부-독일중심)은 건축 양식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내부의 권력 측면을 보더라도 전부 지역주의를 대표하는 것이고, 로마 교회에서 중세 프랑스로 이어지는 중세 교회는 이를테면 중앙권력(카톨릭 중앙정부)을 대표합니다. 이게 당시로써는 대표성, 국제성, 보편성을 갖는 문명 구조였고, 거기에 지역주의가 맞서는 형국인거죠.

그래서, 이 저먼니스(Germaness)라는 게 독일다운 독일성을 의미하는데, 게르만 민족은 로마 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중앙 유럽을 괴롭힌 민족이었어요. 이민족의 침입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민족이었죠. 중세에 오면 이태리에서 프랑스로 이어지는 라틴 문명이 유럽을 이끌어온 중앙의 큰 권력 구조인데, 거기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대전, 히틀러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서양 문명을 이해하고, 예술사나 미술사 같은 데에서는 이 독일성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해체 건축이란 게, 이 독일성과 유대인들의 유대전통.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권력이 유대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에요. 성경에서 구약은 유대교예요. 도올 김용옥 씨가 성경에서 구약을 없애야 한다는 게,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역 종교이지, 그것이 세계적 보편성이나 우주적 보편성을 가지면서 하느님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미에서예요.

종교적으로 보면, 이 카톨릭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중심 문명은, 유대 전통인 거고, 거기에 독일 사람들이 항상 도전을 하는 식이었죠. 이 사이에서 두 민족이 다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래서 민족 단위의 심리적 분석을 할 때에, 독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등장해요, 이상한 병적 심리 현상의 민족으로. 그래서 유대인과 독일인이 해체 건축가 중에는 가장 많아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긴 몇천 년 문명이, 유전자에 문명의 아픈 상처가 개인을 짓누르죠.

여러분은 지금 문명의 폭력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세대는 아닙니다. 문명이나 역사와 같은 큰 흐름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여러분은 모르겠죠. 그 문명 단위에서 겪는 상처는 개인이 겪는 고통(부모의 학대, 어렸을 때 강간을 당했다거나, 가난해서 하고 싶은 공부를 못했다거나), 개인 차원으로 겪는 상처하고는 비교가 안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세대 중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 그분들은 문명의 상처를 겪은 세대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안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들이 단순한 건축 현상이 아니라, 굉장히 큰 유럽의 문명사적인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프랑스 초기 로마네스크 분류

그리고 프랑스의 초기 로마네스크는 부르고뉴 지방과 노르망디로 나뉘어요. 부르고뉴 지방은 900년경부터 클리니(Cleany) 수도원 공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프랑스 로마네스크는 클리니를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돼요. 여기는 수도원이 주축이 된 수도원 도시였어요. 지금 가보면, 조그만 도시로 남아있지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지요. 인구는 얼마 없고 작은 도시지만, 박물관이나 수도원 소속 대학, 이런 것은 로마네스크 연구에 있어 핵심적인 지역이죠.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도시였는데, 저 때 (900년 경) 처음으로 클리니 수도원 공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노르망디 지역에서는 911년에 노르망디 공국이 성립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면서 대형 교회를 지으려는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하죠. 노르망디는 캉(Caen) 도시가 중심이 되고 부르고뉴는 클리니가 중심이 되죠. 부르고뉴 지방을 먼저 보면, 부르고뉴 지방은 롬바르디아 지방의 석구조 천장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통해서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부르고뉴 실험(Burgondian Experiment)이라고 불러요. 구조에서는 석조 볼트 천장, 평면 구성에서는 폴교회와 바실리카 교회를 대표적 특징으로 가졌습니다.

이 지방도 10세기(900년)전까지는 (115페이지 위쪽에) 교회 천장을 목구조로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클리니)가 순례 루트의 주요 길목이 되면서 웅장하면서도 신비로운 실내 분위기를 요구하게 되요. 그러면서 목조 천장이 제일 거슬리는 걸로 받아들여 지게 되면서 클리니 수도사에 있던 수도사들이 들고 일어나 건물을 바꾸자고 하죠. 그래서 석조 볼트 천장에 맞춰 네이브월도 새롭게 정리되는 대대적인 발전이 있게 되요.

그래서 종교적인 입장에서 먼저 방향이 제시되고, 천장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석구조를 바꾸어야 되겠다고 방향이 결정된 거죠. 당시에는 클리니가 상당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로마네스크까지는 수도원이 학문, 예술, 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세속 왕실도 학문과 관련된 것은 수도원 가서 빌려와야 했어요. 예를 들어 신학 철학이 제일 많이 번역되어 있는 곳도 수도원이었고, 여러 가지 기독교 사상이나 이런 것도 수도원을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지원한 기독교 학자나 일반 학자들이 전부 학문, 예술을 했어요. 로마네스크 미술사에서 중요 내용 중의 하나가, 책 표지 디자인 같은 것들도 전부 수도원에서 지원해서 예술가들도 거기에서 작업을 했었죠.

당시로서는 석조 천장으로 대규모 건물을 지어 올린다는 게 엄청난 실험이었습니다. 어쨌든 클리니는 당시로서는 그것을 할 만한 역량이 집결되어 있던 중심지였기 때문에 수도원장을 중심으로 발전이 있게 돼요. 그래서 클리니는 수도원 중에서도 수도원의 중심 본당인 수도원 교회를 중심으로 로마네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전부 3번의 중축이 있어요.

지어진 순서대로 제1, 제2, 제3입니다. 그중에 제3은 프랑스 대혁명 때 95% 이상 파괴돼요. 프랑스 대혁명 때, 신정일치라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권력체계-가톨릭과 세속 권력이 합쳐진 것-모델이 되었던 성당들을 부쉈어요. 이때부터 더 이상 기독교는 프랑스의 국교가 아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닙니다. 고대 성당들은 많이 살아남았는데, 클리니 교회는 거의 다 부서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구조를 연구하는 데에는 충분히 도움이 돼요. 초기 로마네스크는 제2 클리니 수도원 교회, 그리고 제3 클리니 수도원 교회는 성기 로마네스크를 각각 대표해요.

그런데 제3 클리니 수도원 교회를 증축하면서, 제2 클리니 수도원 교회를 허물었죠. 하지만 기초까지 파내지는 않고, 기초는 남겨두고 그 위에 흙을 덮고 새로 지었기 때문에, 이것(제2 클리니 교회)은 기초를 통해서 대체적인 규모나 전모는 추측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그림 140]부터 [그림 142]까지예요. 그렇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기초만 남아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기초의 기둥의 두께나 이런 것을 보면, 천장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기는 합니다. 이 제2 클리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건물이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투르니(Tournus)에 있는 성 필리베르(Philibert)예요. 이 건물은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고, 여러 번 증축이 있었어요.

1019년에 첫 번째 봉헌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1050년에 증축이 한번 있었고, 1070년~1080년에 또 한 번의 증축이 있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건, 1050년 증개축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수도사들은 과거의 낡은 양식에 불만을 가지면서 석구조로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석구조로 대형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실내 폭은 줄이는 대신에) 목구조로 되어 있던 큰 건물의 폭을 조금 줄이는 대신에 석구조로 완전히 대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투르니가 속해 있던 부르고뉴 지방의 종교적 중심지였던 클리니 수도원으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고,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westwork를 보면, [그림 144, 145] 두꺼운 단위 원형 기둥열로 되어 있고, 수직으로 두 종류의 기둥이 중첩이 되면서 석구조로 대체가 되었어요. 나이부와 아일이 어떻게 쓰였는지는(나중에 개축이 됐기 때문에) 처음 지어진 상태는 안 남아 있는데, 천장을 석조 볼트로 축조한 것은 확실합니다. 나이부(네이브)는 그로인 볼트로, 아일 천장은 배럴 볼트로 쓰였는데, 이것은 표준형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중에 표준형이 되면 네이브 천장은 배럴 볼트가 되고, 아일 천장은 그로인 볼트가 되는 것인 표준형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평면의 모듈이 아일은 정사각형이 많고, 네이브는 1:2를 중심으로 한 직사각형이 많아요. 그래서 네이브에는 그로일 볼트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다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아일 천장이 갤러리를 통해서 하중 전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로인 볼트가 배럴 볼트보다는 하중 받치기가(내력 기능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성 필리베르의 첫 번째 봉헌된 내역에 보면, 석조 볼트 천장이 쓰이긴 했는데 그 순서가 뒤집어졌다는 얘기예요. 네이브를 그로인 볼트로, 아일 천정을 배럴볼트로. 처음 실험단계였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다음에 1050년에 증축이 되면서 완전히 바뀌게 돼요. 1050년 상태가 [그림 148, 149]인데, [그림 149]는 1070~80년 이후의 세 번째 상태인데, 천장은 많이 안 바뀌었어요(2번째 개축에서). 그림을 보면, 왼쪽이 아일이에요. 이쪽이 천장이 더 낮잖아요. 그래서 아일은 그로인 볼트, 오른쪽 네이브 쪽은 배럴 볼트로 천장이 구성이 되고, 배럴 볼트는 기둥에 맞춰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서 베이 단위마다 아치의 띠가 쭉 들어가 있어요.(전체적인 모습이 [그림 150]이에요.) 그것을 횡방향 아치라고 불러요. 이것은 보강부재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배럴 볼트 자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아치는 중간에 지지 없이 이 스페인이 마찰력과 혼자 자중을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150]에서 횡방향 아치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서 제2 클리니 수도원은 상태가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전모는 알기 어렵고, 프랑스 부르고뉴 실험의 초기 로마네스크의 완성된 상태를 보여주는 남아 있는 건물 중에 제일 상태가 좋은 것은 이 성 필리베르예요. 지금 본 것처럼 석조 볼트로 목구조 천장이 거의 100% 대체가 됐어요. 근데, 아직은 그 규모가 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기초로 해서 건물을 위로 쭉쭉쭉 뽑아 올리는 것이 이후 성기 로마네스크와 고딕 건축으로의 발전의 방향으로 잡히게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